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박진수 위원

◆ 〈뉴스특보〉[2/23]

2월 23(일) 오후 6시경에는 코로나19 전파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뉴스특보〉를 통해 전달되었다. KBS와 JTBC를 통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전환하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는 등의 긴급한 소식들이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반면, MBC에서는 출연자들이 10명 이상 다수인 〈끼리끼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향후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밀집된 시설 내 여러 명이 함께 접촉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뉴스특보〉에서 확인되고 있었지만, MBC 채널에서는 〈뉴스특보〉와 관련된 그 어떤 소식도 볼 수가 없었던 점이 많이 아쉬웠다.

특히, 2월 22(토)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가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타이밍에 MBC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콘텐츠나 대응 방식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끼리끼리〉 방영 종료 이후 〈복면가왕〉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어떠한 메시지도 살펴보기 힘들었다. 새로워진 MBC 보도 체계와 신뢰에 걸맞지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아쉬움이 발생한 당시 상황과 입장에 대해 여쭙고 싶다.

◆ 경제 이슈 전문 프로그램 신설 건의

지난해 9월부터 KBS에서 매일 저녁 10시 55분에 기존의 딱딱하고 정형적인 시사 프로그램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진 새로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바로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다. KBS 대표 아나운서와 팟캐스트 우수 진행자가 만나 주로 경제 중심의 시사/이슈를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고 해석해 준다. 줄곧 말씀 드려왔었던 ‘경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없어 찾고 있던 터라, 더욱 흥미롭게 매일 시청할 수 있었다.

특히,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인 ‘김동환’ 소장은 팟캐스트에서 경제 분야 1위를 기록 중인 〈신과 함께〉에 출연한 이력이 있으며, 함께 진행자로 활약 중인 ‘정영진’ 씨 역시 출연을 거듭하며 이슈가 되는 경제 소식, 특히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 시장에 대해 유쾌하게 해설해주었기도 했다. MBC에서도 이와 같은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잘 진행할 수 있는 베테랑 ‘이진우’ 기자가 떠오르는 대목이었다.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에서 충분히 검증된 분이 있음에도 왜 MBC에서는 뉴스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매우 아쉽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주목받는 경제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참 많다.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와 벗어나는 경기지표,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경기회복 대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 복잡해 보이는 경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는 이들의 활약은 직장인을 비롯해 많은 대학생 및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경제 이슈 전문 프로그램의 신설에 대해 여러 번 의견 드렸고 그에 대해 답변을 주셨지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현재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의 콘셉트나 포맷과, 보다 말랑말랑한 경제 콘텐츠에 점점 익숙해진 대중들에게 일상 속의 친근한 경제 시사/상식 콘텐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든다. 넷플릭스의 인기 있는 음식/역사/예술/스포츠 관련 다큐멘터리 시리즈들과 현재 공중파 방송의 딱딱하고 오래된 느낌의 다큐멘터리들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 여건상 새로운 경제 뉴스/시사 프로그램 신설이 어려우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진지한 개편과 함께 하는 경제 이슈 전용 코너 신설도 한 번 더 강력히 건의드리고 싶다.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전 경 란 위 원

◆ 〈배철수 잼〉[2/3~3/9]

오래간만에 좋은 예능 프로그램을 만났다. 〈배철수 잼〉이다. 〈배철수 잼〉에는 이야기가 있고, 노래가 있고, 대중문화가 있고,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다. 좋은 토크쇼에는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첫째, 토크쇼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캐릭터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혹은 프로그램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배철수 잼〉의 주 진행자는 대중가수로서의 경력과 음악에 대한 이해, 오랜 기간 음악 프로그램 DJ로 쌓아온 입담과 대중문화를 해설해내는 전문성, 어떤 초대손님이 와도 매끄럽게 대화를 진행해가는 유연함이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더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듯하다.

진행자의 구성에서도 〈배철수 잼〉의 주 진행자가 70년대부터의 사회상과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부 진행자 역시 90년대 이후 자신이 경험했던 문화 콘텐츠와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야기한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특정 연령층에만 소구하지 않고 더 많은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초대 손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회-2회에 걸쳐 초대된 가수 손님들의 경우, 처음에는 왜 이 사람들이지? 주 진행자의 섭외 범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중음악의 흐름 속에 1회 및 2회 초대 손님들이 차지하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단지 이들에 대한 향수나 올드팬의 감성을 건드리기 위해 초대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3회 및 4회의 초대 손님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갑자기 너무 급부상해서 언제 또 거품처럼 사라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지만, 〈배철수 잼〉을 통해 비친 그 초대 손님의 인생 이야기와 삶에 대한 시선, 가수로서의 새로운 모습은 단순히 흥미로움을 넘어 한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20년 가까운 공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었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 5회 초대 손님은 오래도록 잊고 있다가 다시 만난 지인 같은 반가운 얼굴이었다. 또 주 진행자의 전문 분야라 할 수 있는 대중음악을 넘어 만화와 영화 그리고 그 콘텐츠를 둘러싼 사회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로 프로그램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았다.

셋째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주는 시청각적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송사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기에는 아까운 옛날 프로그램의 영상을 보는 재미가 있었고, 주 초

대 손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보조 초대 손님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성이 있어서 좋았다. 또 그들이 들려주는 노래는 프로그램이 녹화되는 장소가 주는 매력과 더불어서 <배철수 잼>을 단순한 토크쇼가 아니라 작은 콘서트로 만들어주었다. 전문 기타리스트의 손을 거쳐 탄생한 편곡, 댄스곡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주는 시도, 젊은 가수들이 소화해내는 한국과 세계 대중음악의 오래된 명곡들은 프로그램을 보는 즐거움 외에도 듣는 즐거움을 얻어주었다. 앞으로 <배철수 잼>이 진솔한 이야기 그러면서도 뽀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내용과 구성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이 상 길 위원

◆ 〈나쁜사랑〉 71~72회[3/10~11]

일일드라마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장르이다. 일일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라면 스토리의 전개가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함으로써 또다시 보고 싶다는 매력을 갖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요즈음 방송되는 일일드라마 〈나쁜사랑〉(극본 홍승희, 연출 김미숙)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드라마는 늘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큰 기업 대표의 식구들과 사랑이 넘치는 가난한 집식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1~72회에서는 가난한 집 최소원을 사랑하는 대기업 ‘노유그룹’의 맏아들 한재혁이 최소원을 교통사고에서 구하려다가 대신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스토리다. 한재혁과 늘 갈등이 있는 둘째 아들 한민혁의 아내 황연수가 어릴 적 입양되어 가난한 집에서 함께 성장했던 최소원이 한재혁과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차로 치려 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한재혁이 대신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다.

이러한 스토리의 전개방법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작위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일일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구성 중에 하나이지만, 스토리의 반전을 위해 황연수가 최소원에게 갑자기 차로 돌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나쁜사랑〉도 다른 매일 드라마와 같이 혼외 자녀 문제, 친자확인 및 상속문제, 미혼모 문제 등 불륜과 비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 전에 방영되었던 〈비밀과 거짓말〉, 〈용왕님이 보우하사〉도 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으로 새로 방영될 일일드라마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식상한 요소들을 되도록 적게 포함하면서도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바란다. 가족이 함께 보는 매일 드라마가 비정상적인 일상을 다루기보다 건전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드라마로 바뀌길 기대한다.

◆ 〈끼리끼리〉 7회[3/8]

지난 1월 26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끼리끼리〉는 “국내 최초의 성향 존중 버라이어티”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흥끼리 그룹과 늘끼리 그룹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은 괜찮으나 프로그램 시청에 지루한 느낌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그룹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기대가 계속되는 화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 요소가 부족한 것 같다. 마치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즐겨 노는 것을 그냥 촬영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조심스러워 MBC 홈페이지에 있는 〈끼리끼리〉 사이트의 시청자 의견을 살펴보니 비슷한 견해를 갖는 시청자들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홍성재 위원

◆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3/9]

- 첫 방송 리뷰

MBC의 새로운 예능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가 실제 연예인 커플의 리얼한 러브 스토리를 내걸고 시작되었다. 연애를 주제로 한 예능은 많았지만 연예인과 일반인의 실제 러브 스토리는 다룬다는 점에서 좋은 포지션을 획득했다고 본다. 화제성 측면에서도 꽤 성공적이라 보인다. 특히 지숙과 함께 등장한 이두희 씨는 알고 보니 마스크 알리미 앱을 만드는 등의 활동으로 생각보다 시민들과 접촉면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더욱 매력이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본 방송의 장점이라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 커플의 실제 러브스토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있겠지만 첫 방송에서 만큼은 화제성과 유니크함을 함께 잡았다.

아쉬운 점은 모니터링을 하는 MC들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 자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직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을 하는 타이밍이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이 점차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다양한 실제 커플들을 통해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담은 장수 프로그램으로 남길 바란다.

◆ <언니네 쌀롱>[3/2]

- 첫 방송부터 종영까지

MBC의 새로운 예능이 시작되면서 <언니네 쌀롱>은 문을 닫게 되었다. 메인 MC의 교체로 인해 프로그램이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꾸준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 제작진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시청자들에게 폭넓게 사랑을 받지도, 일부 마니아를 양성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 아쉽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 특집으로 진행했던 방송들을 호평하는 글들이 보였는데, 내부적으로 일반인들의 메이크오버가 딱히 경쟁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연예인들이 수단으로 메이크오버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당위성이 흔들렸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야외 촬영 예능의 피해 우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의 유지를 강조하는 현시점에서 야외 촬영이 많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은 야외 촬영을 기반으로 하는 예능의 원활한 제작이 걱정스럽다. MBC의 예능 중 야외 촬영이 많은 <끼리끼리>나 <선을 넘는 녀석들> 그리고 <구해줘! 홈즈> 등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하고 또 해외 촬영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야외 촬영이 많은 예능도 형식을 현시점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또 많은 국민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원활한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는 잠재적 스트레스가 크다. 이러한 점을 예능의 명가 MBC에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정 석 희 위원

◆ 〈아침&뉴스, 류수민입니다〉

- 뉴스와 사연을 동시에

매일 아침 표준FM 〈아침&뉴스, 류수민입니다〉를 듣는다. 뉴스에 사연이 더해져서 자질구레한 집안일하며 듣기 딱 좋은 구성이다. 날씨 예보부터 그날의 날씨와 잘 어우러지는 선곡이며 알아두어야 좋은 정보, 청취자 사연까지, 세상을 보는 창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라디오 애청자는 라디오를 늘 곁에 켜두고 일하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알고 있다. 일하느라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접할 여력이 없는 분들께 이 방송은 사회, 정치, 경제 및 그날의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요약해서 전해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 상태에 놓인 분들에게 특히나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3월 9일 월요일 방송을 예로 들어보면 올 벚꽃 개화 시기와 전국 꽃 축제 취소 소식, 마스크 5부제 구입 정보, 당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비자 제한 등 주요 일정과 간추린 뉴스가 이어졌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함께 하는 '이유 있는 뉴스' 코너에서는 대구 한 마음 아파트 코호트 격리 상황과 백병원 폐쇄 상황, 그리고 앞서 전한 뉴스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줬다. 이렇듯 〈아침&뉴스, 류수민입니다〉의 장점은 딱딱한 뉴스이되 전달 방식은 쉽고 편안하다는 것. 고규홍 나무 칼럼니스트가 전해주는 나무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 소홀히 여겼던 나무에 관한 내용이라서 반갑고 전주현 외신 캐스터, 김태범 스포츠 캐스터의 코너 또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서 좋다.

뉴스에 사연을 접목시킨 포맷이어서인지 류수민 아나운서의 진행이 돋보인다. 코너 성격에 맞게 즉, 뉴스를 전할 때와 사연을 소개할 때, 초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각기 다른 톤의 진행이 가능하다. 이른 시간이긴 하나 아기자기한 사연을 통한 청취자와의 소통과 공감이 더해진다면 좀 더 풍성한 방송이 될 것 같다.

◆ MBC 드라마에 바란다

- 드라마, 편히 즐기 보고 싶다

몇 달간 시청자위원회에서 드라마에 관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악성 댓글보다 더 무섭다는 ‘무플’ 상태와 같다. 최근 드라마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작품을 살펴보면 KBS <동백꽃 필 무렵>과 tvN <사랑의 불시착>, SBS <스토브리그> 등으로 인간 군상 드라마 성격에 희비극이 교차하는 구성이다. 영화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함께 고민해야 옳을 분명한 화두거리는 갖추고 있지만 시종일관 어둡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닌 것이다.

혼란한 국내외 정세,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심신이 피폐해진 이때 무거운 주제의 장르물이 환영받을 리 없다. 가벼운 터치로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18일부터 수목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이, 23일부터 월화드라마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이 방송된다는데 자칫 심각한 주제로 인해 시청자의 외면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한 주인공에 의존하기보다는 <동백꽃 필 무렵>의 ‘옹벤저스’나 <사랑의 불시착>의 ‘사택마을 아낙네들’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매력을 끌어내는 데에 힘써주셨으면 한다.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김수정 위원

◆ ‘사회적 거리’의 의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논란이 됐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표현인데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행정용어라서 쉽게 봉쇄라는 표현을 선택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역민에게 봉쇄라는 단어가 들릴 때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정의하는 대로 들리지 않았다. 봉쇄라는 표현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통제를 포함해 행정력으로 대구 지역을 가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쉬웠다.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격분했을까.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 쓰는 봉쇄의 의미가 “(전염) 전파의 봉쇄”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알려지고 나서는 이 표현의 오해가 풀렸을 테지만 단어의 선택과 표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 것인가는 대표적으로 잘 보여줬다.

뉴스는 증폭기로서의 효과가 있다.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고 나면 공적인 사안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제로 중요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이슈는 지역 사회의 안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을 뉴스가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부정확한 사실 인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감안해서라도 최대한 차분하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역할이 언론에게 있다.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의료나 감염관리 전문가의 표현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용어를 뉴스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표현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범한 표현으로도 들리는 사회적 거리는 사회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개인적 관계를 특정 짓는 친밀도와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개인이 타인에 대해 느끼는 친밀성의 정도를 결정할 때 사회적 거리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친근감과 교감 정도가 높은 사이이고,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감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줄어들어 대면을 적게 하고 관심이 줄어든 느슨한 관계의 사이라고 보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 용어가 요즘에는 대면 접촉 거리 정도로 쓰인다. 이를테면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두는 용어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자칫 대면 만남을 제한하고 포기하게 해서 편견과 차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업화될수록 공동체 사이의 ‘사회적 거리’는 가까워져야 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이 거리를 좁혀 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가

지 않고, 집단 행사를 열지 않는 등의 충분한 사례 안내를 함께 해서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알게 하고, 물리적 접촉을 줄이는 것과 별개로 지금의 사태를 우리 모두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리고 포용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 4.15 총선 보도 관련

4.15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선거 이슈를 다루는 보도가 매우 적다. 선거는 지역 의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역할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 정당에서 대면 유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한 탓인지 선거 열기가 높지 않다. ‘총선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 선거 이슈를 접하고 확인할 길이 신문, 방송, SNS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2일부터 8일까지 <뉴스데스크>에서 내보낸 선거 보도를 세어보면 총 9건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치적 참견시점’에서 선거 관련 보도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총 13건의 리포트가 선거 관련 보도였다고 볼 수 있다.

보도 건수 자체가 적다 보니, 보도 주제도 공천 과정과 결과에 많이 할애했다. 후보 동정과 정당의 선거전략에 집중한 경향이 보인다. 대결구도가 선명한 지역의 언급이나 유명 정치인의 공천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보인다. 정치적 참견시점에서 다룬 선거 이슈는 흥미가 있는 에피소드나 정치공방이나, 논란 이슈를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선거 이슈의 이해가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뉴스가 정당의 정책 이슈나 지역의제를 알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 차이가 무엇인지, 신진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었으면 싶다.

이전 선거 보도에서 전 보도국장은 후보들을 거리에서 만나 대담을 했던 시도는 신선했다. 짧은 뉴스로 선거 이슈를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다른 언론과 다른 시도로 분석 보도를 준비했으면 싶다. 인물 간 비방과 폭로 등의 이슈들이 점차 늘어날 텐데 인신공격 자체를 뉴스로 다루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 공약 실행 준비성을 비교, 분석한 보도가 더 많았으면 한다.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오 수 원 위원

◆ 〈MBC 다큐프라임〉 363회[3/15]

2020년 3월 15일 방송된 〈MBC 다큐프라임〉 363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맞추어 우리나라에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앤드류 양의 매달 1,000달러 자유 배당에 관한 공약부터 소개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에 관한 사례,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PFD) 제도의 소개와 그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의 소개로 마무리하였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향후 로봇이나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이 곧 도래하여 현재의 고용구조나 사회안전망 대책에 획기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과 같은 기획이 더 많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체제나 시장경제질서의 모습 그대로가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회의 작동원리로 유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어디로부터 구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의 경우는 알래스카의 석유자원으로부터 그 기본 소득원을 구할 수 있었고 이의 효율적인 투자로 배당금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래스카와 같은 기본적인 자원 없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조삼모사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중국에는 파산에 이르러 우리나라 미래세대에 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부자들에게 고용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에 충당되는 자금을 탈취한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이 왜곡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중국에는 모두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치닫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더욱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주에 2부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다만, 만약 2부에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의 여러 대안의 모색에 관한 추가 제작을 권유해 드린다.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박 성 현 위원

◆ 〈뉴스데스크〉[3/1~13]

- 마스크 관련 보도 유감

2월 후반부부터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월 말~3월 뉴스는 온통 코로나 사태로 뒤덮였다. 특수한 '재난 상황'이니만큼 그에 따른 신중한 보도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많은 언론사들이 국민에게 불안·공포감을 확산시키는 보도를 했고 〈MBC 뉴스〉도 몇몇의 경우 그런 경향에 부합해 우려를 낳았다. 특히 '마스크' 관련 보도는 필요한 정보 제공 외에,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시민들이 고생하고 불만이 크다'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재생해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피로감을 누적시켰다.

- 예) 2월 24일: "한 장이라도 더"...온 가족 동원해 '마스크 구하기' 전쟁
- 2월 25일: 마스크 사려고 수백 미터 줄..."이러다 감염되겠다"
- 2월 26일: 매일 350만 장 푼다는데...내일은 마스크 살 수 있나?
- 2월 27일: 매일 350만 장 푼다더니...여전히 "마스크 없어요"
- 2월 28일: '마스크' 5백만 장 풀었다는데...오늘도 '헛걸음' 많아

2월 말부터 매일 마스크에 2~3꼭지씩 할애하다가 3월 3일에는 6개까지 폭등해 정점을 찍었는데, 이날 포털사이트의 라이브톡에는 마스크 보도에 지친 시청자들의 항의와 비판이 매우 많았다. 마스크 구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보도로 인해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관심을 온통 마스크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월등히 낮고 매일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변수가 많은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 같은 대처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도 없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 얘기만 하는 뉴스는 유익한 보도가 될 수 없다.

특히 3월 3일의 마스크 관련 6개 꼭지들 중 특히 "마스크 안 써도 된다?...환자 늘자 느슨해진 기준"에서 마스크 권고 사항의 변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는데, 방역당국의 말이 자꾸 바뀌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비판 내용들 중 일부는 〈뉴스데스크〉의 이전 보도(2월 뉴스들) 내용과 배치되는 듯한 면도 있어 이 역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예 1) 3월 3일(“마스크 안 써도 된다?…환자 늘자 느슨해진 기준”): “그러다 오늘은 급기야 건강한 일반인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 2월 12일(“집 앞 슈퍼 갈 땐 꼭 안 써도”…마스크 오해와 진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외에선 필요치 않다고 2월 12일에 이미 인용 보도함)

예 2) 3월 3일(“마스크 안 써도 된다?…환자 늘자 느슨해진 기준”): “마스크 재사용도 이제는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 2월 26일(“열 가하고 소독약 뿌리면…‘마스크’ 재사용 가능?”): 인터뷰 내용 “...그 필터는 깨지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사용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한해 일부 재사용 가능하다고 2월 26일에 이미 인용 보도함)

예 3) 3월 3일(“마스크 안 써도 된다?…환자 늘자 느슨해진 기준”):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지난달 6일) “굳이 KF94,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KF80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가 품질 사태를 겪고 병원들도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자, 일주일도 안 돼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이라며 권고 기준을 또 바꿨다. 이때부터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대상, 기침하거나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했다.

→ ‘지난달 6일에서 일주일도 안 돼서’라는 것인지, 맥락이 불분명해 날짜 상의 혼란이 생긴다. 질본 정례 브리핑의 다음 내용은 2월 5일자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병원 근무자 등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KF99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일반인의 경우 KF80을 사용하여도 효과는 있다.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때는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침방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방한(면 등 재질)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3월 4일(마스크 품귀에…‘폐기처분’ 마스크를 약사가 유통) 관련, 2월 12일 보도에서 이미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온 상태인데, 이 꼭지의 끝부분에서 기자는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보도를 해 의아함을 자아낸다. 한편, 같은 3월 4일에 보도된 마스크 관련 꼭지 하나 “면 마스크 써도 된다”…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인가는 전날 마스크 관련 보도에 비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보도는 언론이 비판하는 방역당국,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대책이 빛은 혼선만큼 언론 스스로도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 언론은 마스크 착용 조건, 재사용 가능성, 방역에 있어 마스크의 비중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조사하고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3월 3일 <뉴스데스크>의 포털사이트 라이브톡 누적 수는 9만 8백대로, 기존에 1위였던 타방송 뉴스의 라이브톡 누적 수(9만 4천4백대)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당일 <뉴스데스크>의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도 3만 명대까지 갔고(구독자 57.9만 명, J방송사 뉴스는 당일 2만 2천~3천, 구독자 128만 명), 매일 평균 2만 수천 명에 이른다. 3월 10일은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 3만 4천 명대, 포털사이트 라이브톡 누적 수 9만 4천4백대(J방송사 뉴스는 각각 1만 4천 명대, 9만 4천9백대)이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몇 달 전 <뉴스데스크>의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포털사이트 라이브톡에 긍정적 반응들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그것이 곧 시청율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 <뉴스데스크>를 신뢰하고 아끼는 시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3월 3일의 반응은 <뉴스데스크>를 아끼는 많은 시청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 같아 우려가 되었다. 다행히 이후의 뉴스들에 변화가 엿보여 고무적이다.

- 국민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뉴스

3월 4일 코로나19 1129번째 확진자인 문화해설사의 꼼꼼한 동선 일지 작성 얘기는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3월 3일)보다 늦어져 기시감을 준 아쉬움이 있다. 대구 동산병원 의사 인터뷰를 비롯해 간호사 얘기 등 의료진의 헌신, 환자 이송을 도우러 간 전국의 구급차들, 검체 검사 연구원들과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직원들처럼 의료진 외에 코로나와 싸우는 사람들, 시민들의 기금 마련 등, 이런 긍정적인 뉴스는 코로나 사태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 특히 '오늘 이 뉴스' 코너는 이런 소식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시청자에게 격려가 된다.

- 아쉬운 부분

코로나 관련 내용이 뉴스의 거의 모두를 차지하면서 정치 관련 뉴스의 비중이 적는데(경제뉴스는 늘 아쉬운 부분이다), 총선과 관련해 거의 공천 위주로만 보도되어 내용이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그나마 총선 뉴스는 '정치적 참견시점'에서 주로 나오는데, 코너의 특징상 흥미 위주의 에피소드 정도로 다뤄지는 편이라 제대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정치 뉴스를 보기가 어렵다. 비례대표제와 선거구 개편 등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때가 때이니만큼 코로나 위주로 뉴스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더 다양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바로 간다', '소수의견', '법이 없다', '로드맨'은 어디에?

역시 코로나19 때문인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이 좋은 코너들이 드물어졌다. '바로 간다'는 2월 5일, 11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인 3월 12일에 방송이 되었고 나머지 코너들도 2월 이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뉴스 홈페이지 상에서 예전에는 왼쪽 편에 코너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인 감소 현상인지 혹은 폐지된 것인지 궁금하다. <뉴스데스크>의 매력적인 코너들이어서 오래 못 보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아쉽다.

특히 보도본부 인권사회 팀의 '장애인 인권 기획보도'는 '제18회 언론인권상' 특별상(2020년)을 수상할 정도로, 의미 있는 기획이자 꼭 필요한 보도로서 그 의의와 열의를 인정받은 좋은 코너였다. 지난 2019년 4월 '소수의견'에서 시각장애인 대학생인 한혜경 씨가 직접 바이라인을 쓰면서 시민기자로 활약해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 것은 신선하면서도 설득력이 컸다. 그런 훌륭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다.

3월 3일 뉴스("마스크 구하기 전쟁 속... "노인·장애인은 소외")에서 일부 다뤄지긴 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마스크 구입을 비롯한 여러 정보 획득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실정을 혹시 한혜경 씨가 다시 리포트 해 줄 수 있을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장애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이 코너들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인 문제가 인권단체들을 통해 언급되기는 하지만, 공영방송 메인뉴스에서 보도될 때의 파급력은 매우 큰 것이고, MBC <뉴스데스크>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조명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도본부 인권사회 팀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윤 여 진 위원

◆ <PD수첩>[3/10, 17]

코로나19로 모든 사회가 멈춰있다.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국 사회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역 감염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감염병과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PD수첩>의 '코로나19와 신천지'라는 제목을 보면서 걱정이 앞섰다. 지역 감염의 시작을 신천지 대구교회의 2월 16일 예배로 보고 있고, 그 후 대구경북지역의 집단감염에 신천지 신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지만, 신천지 또한 일부러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와 신천지'라는 제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확산하듯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직접적 가해자로 보이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천지 측의 투명하지 못한 명단공개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문제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직접적 가해자라고 낙인찍는 것은 옳지 못하다.

3월에 들어서 집단 지역 감염으로 구로 콜센터, 그리고 최근 해외 입국자로부터 확진자가 증가되는 추세가 되기 전까지 언론은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와 신천지와의 관계성부터 먼저 찾아보았고 마치 신천지 탓에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감염병 재난보도준칙과도 맞지 않는다. 이번 <PD수첩>은 코로나19와 신천지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제목만으로는 신천지와 코로나19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PD수첩>은 오랫동안 이단종교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해 왔고 신천지와 관련된 방송도 2007년에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신천지라는 교회의 전도 방식과 다른 교회나 종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2부에 걸쳐 특별히 방송되었다고 보인다.

이번 '코로나19와 신천지'편에서는 신천지교회의 성장과 전도 방식에 대해 집중 취재하며 신천지를 이탈한 신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세를 확장했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사기 협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형법상 사기 및 협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가 어지럽게 된다는 취지다.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탄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가 있는데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으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증명하기 위해 보낸 사자이

며, 신도들은 이 총회장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신천지를 전도하는 신도들은 처음에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 만약 신천지라는 것을 의심하면 전도자들 중 일부는 같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해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이를 관리해 의심을 배제시켰다.

방송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들이 '모락전도'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단순히 속일 뿐 아니라 타 종교지도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이탈하려는 신도들을 막고 그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문제의 종교라고 보였다. 특히 청년과 여성들이 많은 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요즘의 청년들이 힘든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파고들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세뇌하는 것은 정말 문제이고 사회악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PD수첩>은 오랫동안 이단종교의 문제를 제기해 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였고, 내용상으로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신천지라는 내용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상황에서 그 종교의 문제적 실체를 보여준 것은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신천지가 방송을 문제 삼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천지 종교의 문제를 2부에 걸쳐 제작된 것이 너무 반복적인 내용으로 제작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 이상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론은 잘 살피고 추후 함께 해결해야 할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유치원과 학교를 가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보도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